

칸트철학과 그에대하고찰(三)

李相殷

缺點을 綜合批判은 免할 수 있다. 綜合批判은 賓詞가 主詞의 맞게있다. 다시 말하면 賓詞의 意義는 主詞속에 包含되었든 것이 아니요, 經驗속으로부터 어든 것을 主詞를 加해준 것이다. 예컨대 『物體는 重量이 있다』 이 判斷에 있어서 칸트는 말하기를 『重量』이 아는 概念은 『物體』라는 概念에서는 차저낼 수 업수 업는 것을 吾人의 經驗으로 物體와 重量이 恒常 서로 싸러다님을 認識하게 되어 드대여 『物體는 重量이 있다』고 判斷을 내리우게 된 것이라 한다. 이런 것을 綜合判斷이라 한다. 그럼으로 綜合判斷은 新知識을 增加시키나니 經驗이 만홀수록 新知識은 더욱 豊富하여진다. 이 點에 있어서 綜合判斷은 分析判斷의 弱點을 免하얏다. 그러나 同時에 그 缺點은 必然성과 普通성이 업는 것이다. 經驗은 다만 이리하다고 말할 뿐이요, 반듯이 이리타고 말치 못하며 언제나 어데나 이리타고 말치 못한다. 어제 해가 東쪽에서 썩고 오날도 東쪽에서 썩스니 來日도 해는 東쪽에서 썩 것이다. 우리의 經驗은 기 쓴했자 『썩 것이다』라는 蓋然的 判斷맞게 못내리우고 『쓰지 안으면 안된다』는 必然的 判斷은 못내리운다. 그럼으로 다만 分析判斷으로도 참된 知識이 될 수 업고 다만 綜合判斷으로도 참된 知識이 될 수 업다. 참된 知識은 반듯이 先驗的이오 同時에 綜合的인 것이라야 한다. 先驗的 綜合判斷, 이것이 비로소 우리의 要求하는 바 知識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先驗的 綜合判斷이 잇는가? 업는가? 칸트는 잇다 하얏다. 卽 數學 上 命題라든가 自然科學의 原則이라든가 形而上學의 判斷이라든가가 모다 先驗的 綜合判斷이다. 그러면 『智識이 엇더케 可能한가』하는 問題는 갈러 말하면 卽 數學이 엇더케 可能한가 自然科學이 엇더케 可能한가 形而上學이 엇더케 可能한가의 세 가지 問題이며 合해 말하면 卽 先驗的 綜合判斷이 엇더케 可能한가의 問題이다.

이 問題를 解答하라면 먼저 智識의 機關()을 檢討해보지 안으면 안된다. 智識의 機關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말하되 사람의 心靈은 三大智識의

機關을 가졌스니 一日感性, 一日悟性, 一日理性이라 하였다. 感性은 接受의 機關이요, 悟性은 思惟의 機關이요, 理性은 綜合의 機關이다. 感性은 直觀에 依하여 智識의 材料를 取集하고 悟性은 概念에 依하여 取集한 材料를 □理하고 理性은 觀念에 依하여 感性和 悟性이 供給한 智識을 다시 綜合하며 統一한다.

이 까닭에 智識이 엇더케 可能한가의 問題는 以下の 세 가지 問題로 갈러 볼 수 있스니 一은 感性이 엇더케 可能한가 一은 悟性이 엇더케 可能한가 一은 理性이 엇더케 可能한가의 세 가지 다 칸트는 第一問題를 超越的 觀家論에서 解答하였고 第二問題를 超越的 論理學에서 解答하였고 第三問題를 超越的 辨證法에서 解答하였다. --- 이 세 가지는 모다 그의 第一部 著作 『純理批判』의 □名이다. --- 이제 이 次序대로 그의 解答한 바를 各各 節를 달이하야 大□□述하여 보겠다.

第二節. 感性和 및 그 直觀形式.

感性은 事物을 直觀하여 知識의 材料를 獲得하나니 이것이 知識成立의 第一步이다. 그런데 問題는 感性이 엇더케 事物을 直觀하는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엇더한 條件 論理的 條件 下에서 感性은 비로소 事物을 直觀할 수 있는가는 것이 本節에서 解答하라는 問題이다.

우리는 무엇을 直觀(), 或은 知覺하려면 반드시 먼저 엇던 感覺을 가지게 된다. 마치 소리(聲音), 빛(色), 굳음(硬), 부드러움(□) 等の 感覺이 그것이다. 그런데 單純히 이런 感覺만은 다만 吾人의 意識 上 □種變化에 不過한 것이니 그것은 오즉 一種의 主觀的 狀態일 따름이요, 客觀的 知識의 材料라 할 수 없다. 客觀的 知識材料가 되려면 感覺은 반드시 時間과 空間에 依托하여 時間 上과 空間 上으로 一定한 位置를 占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知覺한 바 事物은 언제나 다른 事物과 時間과 空間 上 關係를 發生하는 事物이다. 그것은 언제나 엇던 事物과 時間 上으로 前後의 關係를 가지며 空間 上으로 左右, 前後, 上下의 關係를 가지지 아님이 없다. 가령 只今 나는 한 『곰쭈』를 본다. 이 곰쭈는 벌써 테-볼 우에 올려놓인 것이며 나의 입헤 잇는 것이며 잉크瓶 왼쪽에 잇는 것이며 쏘는 내가 물 마시라는 생각이 잇슨 뒤에 본 것이다. 이리하여 내가 只今 知覺한 이 곰쭈의 感覺은 적어도 벌써 客觀적으로 時間的 쏘는 空間的 秩序 中에 配置된 것이요, 單純히 主觀 上 意識狀態뿐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知覺, 或은 直觀은 그것을 分析하면 두 가지의 要素를 가졌스니 一은 形式이요, 一은 內容이다. 內容은 卽 感覺이요, 形式은 卽 時空(時間과 空間 簡□을 取하여 以下에도 이리케 使用함)이다. 感覺은 말하자면 一種의 素材이다. 感性은 이 素材를 時空의

形式속에 配置한 後이라야 비로소 知覺(或은 直觀)을 構成식한다. 그럼으로 우리의 心靈은 다만 感覺을 接受할 뿐만 아니라 또한 能히 感覺을 直觀하니, 그 直觀의 形式은 卽 時間과 空間이다. 우리는 엇던한 빛을 보던지 엇던한 소리를 듣던지 모다 時間과 空間의 形式으로써 보고써 듣는다. 만약 心靈을 우리의 눈이라고 □한다면 時間과 空間은 卽 이 눈의 두 眼鏡이다. 눈은 眼鏡을 通하여서만 物건을 볼 수 잇는 것과 가티 心靈은 時空을 通하여서만 事物을 知覺할 수 잇다. 心靈은 時空을 通하여 事物을 直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時空自體를 直觀한다. 다시 말하면 心靈은 時空 內에 담겨잇는 事物을 直觀할 수 잇슬 뿐 아니라 아무런 事物도 업는 單純한 時間과 空間 그 自身도 直觀할 수 잇다. 이는 우리의 心靈構造가 本來 이처럼 된 까닭이다. 이런 時空自體의 直觀을 칸트는 純粹經驗과 對 心靈되는 말이니 純粹直觀이라함은 卽 一 心靈의 經驗的 分子가 업는 完全한 先驗的 直觀을 말함이다.